

기록하는 삶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 안 제

기록은 다른 어떤 동물에도 없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행위이다. 약 4백만 년 전에 인간이 직립(直立)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짐으로써 물건을 들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돌이나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어떤 모양을 새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점차 문자와 숫자가 발달되어 왔으며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수월해졌던 것이다.

중국의 한자는 기원전 26세기경에 만들어졌고 서양의 알파벳은 기원전 15세기경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문자는 3세기경, 그리고 우리의 한글은 1446년에 창제되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전 3300년경, 한자의 숫자는 기원전 1300년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와 숫자의 발명으로 인류의 기록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서로간의 정보와 소식을 교환하고 후세에 역사를 전수하게 된다.

보통 기록을 잘하는 국민으로 일본을 꼽는다. 독일과 영국 및 미국 사람도 기록을 잘 한다고 한다. 이들 국민은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기록도 철저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왕조실록이나 개인문집을 보면 기록을 그렇게 등한시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하여 수많은 연혁집이나 백서(白書)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개인들도 일기나 가계부 등을 적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사람은 기록에 약하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록에 약한 것에는 몇 가지 까닭이 있는 듯하다. 그 첫째는 높은 문맹률(文盲率)에 있었다. 한자는 물론이고 한글까지도 익혀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기록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함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에 기록할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웠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기록에 의한 피해의 발생에 있었다. 기록한 것이 남에게 알려져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당국에 발각되어 연루자가 일망타진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기록을 하지 않거나 기록한 것을 곧 없애버리는 풍토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나의 경우 개인생활의 일부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가 시작되던 1948년 9월이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계시나 꿈의 해몽으로 이루어진 것은 더욱 아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시작된 일

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배운 한글의 실력으로 그때까지 만화, 동화집, 소설 등을 매우 많이 읽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접하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호할 때가 있었고 한참 읽는 도중에 ‘아하 이것 읽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시간의 허비를 후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리하여 고안해낸 방안이 읽은 책을 적어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 이름만 적다가 다음에는 관람한 영화제목을 추가하였으며 세월이 감에 기록항목을 점점 추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거의 7백여 개의 항목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그래서 몇 해 전에 ‘기록의 명인(名人)’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70년 넘게 매일 같이 기록을 해 오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점차 개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기록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셈이다. 필자가 하고 있는 기록의 방법을 소개하여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기록의 첫번째 단계는 ‘기록원본’에의 기입이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사건원본에 기록하고 하루 생활의 진행을 순서대로 일지원본(日誌原本)에 기록한다. 다음 단계는 ‘기록정리본’으로의 이기(移記)이다. 한 달 가량 기록된 기록원본을 기초로 하여 다른 좋은 노트에 깨끗이 옮겨 적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기록집계’의 정리이다. 한 달 단위, 1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여 주요 항목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기록원본에서 기록집계에 이르는 단계마다 항목별로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많이 복사해 두면 기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일지기록에 있어 본인 생활과 더불어 국가·사회·세계의 일지를 함께 병기할 때에는 매일 신문을 보고 발췌하는 것은 힘이 들고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 해 4·5월경에 발간되는 연감(年鑑)을 구해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손쉽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기록은 그 개인에게 몇가지 이로움을 준다. 기록과 정리 및 집계를 통해 자기 생활을 반성하게 되고 자랑스러운 기록을 위해서도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향후의 생활을 계획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후손이나 후세에 역사의 한 편을 전수하여 하나의 교훈이나 귀감을 삼도록 하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의 소비가 많고 힘이 든다는 점, 개인생활을 공개하는데 대한 정성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기록의 내용에 따라 시비와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결함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도 기록에 의한 이득이 손실보다는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금년 일년간에 일어났던 중요사항을 기록해 보고, 나아가 내년 일년간의 생활계획을 구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기록의 습관을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